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Verse 25. *And they were both naked, the man and his wife, and were not ashamed.*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2장은 1절로 17절까지, 그리고 18절로 오늘 끝 절인 2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지창조 및 인류 역사의 시작 본문으로 알고 있는 창세기의 처음 장들은 사실은 언제 시작되어 얼마나 존속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장구한 교회 시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시대들을 이름하여 순서대로 태고교회(太古, *The Most Ancient Church*)와 고대교회(古代, *The Ancient Church*)라고 합니다. 노아의 대홍수를 기준으로 그 전을 태고교회, 그 후 아브라함의 등장 전까지를 고대교회로 나눕니다. 실제 역사는 아브라함 때

부터이고, 그전,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첫 장부터 11장까지는 일종의 이야기, 즉 주님의 여러 비유들처럼 겉 글자 그대로의 뜻이 아닌, 다시 말하면, 실제 일어난 역사가 아닌, 주님과 천국, 그리고 교회에 관한 것들을 가리키는 일종의 상응(相應)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천지창조의 첫 육 일간 기록으로 읽는데, 그건 그냥 겉 글자로 읽는 것이고, 실제로는 인간의 거듭남을 여섯 단계로 나눠 그렇게 재미있게 기록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복음서 비유들을 우리는 글자 그대로 읽는 대신 그 표현들 속에 감춰진 속뜻으로 읽듯 말이지요. 창세기 첫 장들을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형태의 서술 혹은 기술 방식을 태고 및 고대인들이 즐겼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어떤 장구한 실제 역사를 이렇게 축약, 하나의 멋진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하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첫 두 교회 시대가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저는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인 45, 6억 년 주장을 믿습니다. 실제 역사인 아브라함의 출현을 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약 6천 년 전으로 본다면, 45억 년에서 6천 년 사이 그 장구한 세월 중 태고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일만 년도, 십만 년, 백만, 천만, 일억 년도 상상이 안 가는데 사십오억 년이라니! 성경이 무슨 다큐멘터리 기록물도 아니고... 이 장구한 세월을 굳이 다 기록하실 필요가 있나요? 주님은 인류가 거듭나 천국에 올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태고인들의 언어 습관을 따라 창세기, 곧 시작하는 책의 앞부분을 이렇게 이야기체로, 스토리텔링으로 기록하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걸 글자가 아닌, 주님의 복음서 비유 읽듯 속뜻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1장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거듭남과 관련된 수많은 일련의 상태들을 육 일 또는 기간들로 나눈 이야기이며, 그 결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이 기간에 영적 상태, 곧 영적 인간이 되어 온 이야기라면, 창세기 2장은 그 영적 인간이 이번엔 천적 인간, 곧 천적 상태가 되는 이야기이며, 이것을 2장 전반부에서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이 속한 후반부 18절로 25절은 그렇게 출발했던 선조들, 즉 태고교회 1세대와는 달리 그 후손들로 내려가면서 시작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조짐들은 3장으로 이어져 결국 일이 터지는데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즉 거듭남이 완성되어 천국 천사들처럼 백 퍼센트 순전한 상태로 주님을 사랑했던 태고교회 일 세대 선조들과는 달리 그 후손들은, 물론 그들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지만 조금씩 그 궤도를 탈선, 자신과 세상 또한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18절), ‘뚝는 배필을 지으리라’(18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19절), ‘깊이 잠들게 하시니’(21절),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오’(22절),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23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24절) 및 오늘 본문인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와 같은 스토리로 표현, 첫 인류인 태고교회의 영적 탈선이 일어나는 동안 주님은 이를 돌보시기 위해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셨는지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후반 본문이요, 전체적으로는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잠깐, 앞으로 창세기 이 원고 설교를 주욱 진행하기 앞서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11장까지는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든 이름은 거의 다가 특정 개인의 이름이 아닌, 그와 같은 신앙으로 모인 사람들, 곧 교회를 말하며, 같은 말이지만, 신학적 입장, 곧 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가령, ‘아담’하면 아담이라는 한 개인이 아닌, 태고교회 전체를, ‘가인’하면 아담교회에서 파생되어 일어난 이단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째, ‘천적’, ‘영적’이라는 표현에 관해서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성과 사람 및 천국의 구조 등과 다 서로 관련되는 것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신성은 사랑과 신앙, 혹은 선과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will*)와 이해(*understanding*)로 되어 있고, 천국은 두 나라, 천적 나라와 영적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랑, 선은 사람의 의지 및 천적 나라와, 주님의 신앙, 진리는 사람의 이해 및 영적 나라와 연결됩니다. 머리 신앙은 영적, 가슴 신앙은 천

적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주님의 신성 중 사랑과 선을 더 받아들이는 나라가 천적 나라, 삼층천, 신앙과 진리를 더 받아들이는 나라가 영적 나라, 이층천, 다르게 표현하면, 천적 천국에서 받아들이는 주님의 신성을 천적이라 하고, 영적 천국에서 받아들이는 주님의 신성을 영적이라 해도 같은 말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무슨 평평한 곳에 다 같이 모여있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The Word*)은 천국과 상응하며,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천국의 구조와 속성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어찌 보면 지난 주부터 시작한 모든 원고 설교의 출발점과 그 배경에 대한 설교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의 아케이나(*arcana*, 秘義, Secrets, 속뜻)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시작할 수도, 또 말씀드린다고 그걸 이해하실 수도, 더 나아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 오늘은 요만큼만 언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

창2:25, AC.163-165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지 아니하니라’은 그들, 곧 태고교회, 그리고 천적 인간이 순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담과 그의 아내, 갈빗대, 뼈, 살 및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 등에 대한 아케이나가 좀 필요하여 짧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https://bygrace.kr/>) 번역-AC(4차) 카테고리 창세기 2장 전체 번역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속 사람과 겉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런 설계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원래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속 사람, 곧 신성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주님의 겉 사람, 곧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각각 천적 인간의 속 사람과 겉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며, 겉 사람이 속 사람에게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천적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속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피조물을 비롯, 모든 존재는 자신의 고유 본성을 가집니다. 그것

을 라틴어로는 프로프리움(*proprium*), 영어로는 오운(*own*)이라고 합니다. 현대 영어로는 셀프후드(*selfhood*)로도 번역하더군요. 쉽게 말해, 자아로 이해해도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인간의 이런 내적 개념들은 우리 사는 이 자연계에서는 이해하기가,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영계에서는 밝히 이해되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자아를 극복,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는 천사입니다. 사람이 자기 본성에서 물러나 주님을 향하는 만큼 주님은 그에게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천사는 전에 사람이었던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사람 따로, 천사 따로 창조하지 않았습디다. 주님 자신,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천사는 그 전에 지상에서 육체의 삶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타고난 자아는 악과 거짓밖에 없어 천국 천사들이 볼 때 까만 덩어리로 보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거듭남이 시작되어 주님의 생명이 깃들기 시작하면서 아름답게 변화합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다.

사람이 주님보다 자기를 더 향할 때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불편해하며, 어서 좀 독립했으면 합니다. 이런 상태의 자아를 ‘뻘’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뻘’ 상태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 상태가 되면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처음부터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의 자아를 새롭게 주님의 생명이 깃든 자아로 업그레이드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자아가 ‘여자’이며, ‘살’이고, 나중에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자아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 사람 안에 조성하신 주님의 모든 것, 모든 애정과 감정, 정서, 느낌과 기분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라 하신 것입니다. 즉 ‘애, 내가 너에게

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으니 보고 딴 데 시선 돌리지 말고 내가 준 것으로 기뻐하면 안 되겠니?’ 하신 것이지요.

아담은 그걸 다 일일이 보되 아주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 정말 탁월하고 소중한 가치를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아를 향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그 선택을 존중하시는 주님은 할 수 없이 그를 그 상태에 있게 하시고, 대신 그를 위하여 ‘뚝는 배필’, 곧 그를 위한 새로운 자아를 준비하여 데려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아담은 이 새로운 자아의 놀라움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소리칩니다. ‘이는 내 뻘 중의 뻘요 살 중의 살이라!’

이제 아담은 그의 아내와 합합니다. 속 사람이 겉 사람에게 내려가 겉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둘이 너무나 결합된 나머지 한 몸처럼 보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겉 사람이 속 사람에게

창2:25, AC.163-165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순종, 천적 인간의 상태였고, 주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사 이들에게 주님의 순진하심, 곧 천국의 이노센스를 이들에게 마치 가랑비처럼 소리 없이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런 호의로 이들의 자아는 늘 축축할 수 있었고, 순진하여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 재산 중 자기 분깃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잠자코 그렇게 해주며, 세월이 흘러 그가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변함없는 애정으로 그를 맞이하신다는 누가복음 15장, 소위 ‘탕자의 비유’ 이야기처럼, 주님은 창세기 2장 후반부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2장 후반부는 그 겉뜻으로만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 거의 모든 결혼식 주례사 본문으로 채택되는 본문입니다만, 그러나 그 속뜻을 보면 사실은 안 좋은 조짐, 곧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인간의 영적 탈선의 조짐을 담은 이야기라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짐과 이 우려가 본 장 17절에서 주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다음 장 3장에서 일어나고야 맙니다.

참고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주님에게 속한 것을 세상 지식으로 접근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말합니다. 사람이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생명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그걸 **‘반드시 죽으리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앞부분 선악과 부분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려는 인간의 영적 탈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속성, 사람의 이런 태도는 주님의 인도를 가장 기뻐하여 전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천사들의 태도와 정면 배치됩니다. 다음은 순진함이란 무엇인가, 천사들의 이노센스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글입니다.

세상에는 순진함이 무엇이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순진함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순진함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다. 얼굴, 말, 동작 등에 나타나며, 특히 아이들의 경우 더 그렇다. 그럼에도 순진함이 무엇인지는, 더욱이 사람 안에 천국이 담기는 바탕이 바로 순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진성이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다. (HH.276, 김은경 역)

지혜로운 순진함이 진정한 순진함이다. 그것은 정신 자체에, 즉 의지(*will*) 자체와 그에 따른 사고력(*understanding*)에 속한 것이므로 내면적이기 때문이다. 의지와 사고력 안에 순진함이 있으면 지혜도 있다. 지혜는 의지와 사고력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순진함은 지혜를 거쳐로 삼는다고 하고, 천사는 그 순진한 정도만큼만 지혜롭다고 한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순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한 것도 제게서 나온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 근원을 주께 돌린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 또 모든 선한 것을 사랑하고 모든 진리에서 기쁨을 얻는다. 선을 사랑하는 것, 즉 선을 의도하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그들이 알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은 많은 적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한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필

요한 만큼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즉 조금 필요한 사람은 조금 받고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 오직 모든 것을 살피시고, 영원한 것을 섭리하시는 주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2) 그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그들은 내일 염려라 부르고, 그것은 삶에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잃거나, 못 받을까 봐 근심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대인관계에서 그들은 절대 악한 의도로 행동하지 않으며 오직 선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의도로 행동한다. 악한 의도로 행동하는 것을 그들은 교활함이라 부르며 뱀의 독처럼 기피한다. 그것이 순진함에 완전히 대립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받는 모든 것의 근원을 주께 돌리기 때문에 자기 본성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들이 자기 본성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만큼 주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신다.

창2:25, AC.163-165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그 결과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기억에 저장하지 않고 즉시 순종한다. 즉 말씀대로 의도하고 실천한다. 그들에게는 의지 자체가 기억인 것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대체로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아주 지혜롭고分別력 있다. 다음의 성경 말씀은 이들을 가리킨 것이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10:16)

이것이 ‘지혜로운 순진함’이라 부르는 그 순진함이다.

순진함이란, 어떤 선함도 그 근원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모두 주께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순진함이란,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혜를 이루는 모든 선과 진리를 받는 근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린 시절에는 외적 순진성, 나이 들어서는 내적 순진성을 지니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전자를 통해 후자에 이르고, 다시 후자에서 전자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늙으면 몸도 줄어들고 다시 아이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번엔 지혜로운 아이, 즉 천사가 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아이’란 높은 의미로는 천사를 뜻한다. 성서에서 ‘어린아이’는 순진한 사람을 뜻하고, ‘노인’은 순진한 상태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한다. (HH.278, 김은경 역)

우리는 이런 순진, 이런 이노센스를 절대로 놓쳐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이노센스가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며칠 전, 몸살기가 있다는 큰애에게 제가 달아준 카톡 본문입니다.

1. 주님의 빛을 구한다.
2. 그 빛이 영육간 안팎으로 충만함을 느낀다.
3. 그 빛이 몸 구석구석 환히 비춰 몸살 기운을 밀어내고 있음을 관찰한다.
4.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위 1, 2, 3을 따라 한다.

어른이 되어도 순진무구, 천진난만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깨끗한 사람 안에 담기기 때문에 그는 일상에서 천국을 살게 됩니다. 아멘아멘, 할렐루야!